‘항상, 너를’ 오디션 지정연기

수능이 끝나고 교실에서 빠져나가는 학생들,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가방을 챙겨 천천히 일어난다. 복잡한 표정을 지은 채 현관 계단으로 내려오던 주인공, 수능이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. ‘이게 진짜 끝인가? 내가 겨우 이 시험 때문에 몇 년간 힘들어했나?’ 복잡미묘. 슬프기도 하고, 의외로 덤덤한 기분. 털썩 주저앉는다. 그렇게 슬프진 않은 것 같은데, 눈물이 흐른다. 그 때 운동장에 서 있는 엄마가 보인다. 나를 발견하고 웃으며 다가오는 엄마. 엄마를 보니 울컥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. 엉엉 운다.